코로나 고령 확진자 증가…15일 거리두기조정안 발표할 듯

백신 4차접종 60세 이상 확대 "방역조치 완화도 검토"

광주·전남 신규 확진 1만명대…전국 7주만에 10만명대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만 5000명대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7주만에 주 중반 기준 10만명대 떨어지는 등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방역당국은 다만 고령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60세 이상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15일에는 일부 완화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7408명, 전남 8447명 등 1만5855명이 신규 확진됐다. 연령별로는 0~20대가 39.4%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도 20.1%나 됐다. 동구, 서구, 남구에 있는 요양병원·시설 3곳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각각 11명, 43명, 40명이 추가 확진됐다. 북구 소재 의료기관에서도 15명이 추가 확진됐다.

전남은 순천 1564명, 여수 1138명, 목포 975명, 광양 721명, 나주 66명 등 22개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특히 여수의 경우 60대 이상이 344명으로 지역 확진자의 30.2%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는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했던 주 중반 수요일임에도 확진자가 줄면서 모처럼 10만명대 후반(수요일 기준)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9만 5419명 늘어 누적 1583만 64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 21만755명보다 1만5천336명 적다. 통상 주말을 거치며 줄어들었던 신규 확진자 수는 화요일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수요일에 가장 많은 양상이 나타나지만 최근 이어지는 감소세에 이날 확진자 수는 오히려 전날보다 소폭 줄었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이다.

최근 6주간 매주 수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는 21만 9222명→ 34만 2430명→40만 568명→49만 777명→42만 4574명→28만 6264명으로, 지난 2월 23일(17만 1449명) 이후 7주 만에 10만명대로 내려왔다.

1주일 전인 지난 6일 28만 6264명과 비교하면 9만845명, 2주 전인 지난달 30일 42만 4574명보다는 22만9천155명이나 줄었다.

정부는 다만 고연령층의 코로나19 신규 감염 확산이 여전하다고 보고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60세 이상 연령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도 4차 접종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1차장은 또 "정부는 민생경제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조치도 차근차근 조정해나가겠다"며 "이번 주 금요일(15일)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방안과 더불어 방역·의료체계를 일상화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국제적인 동향을 보면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비상사태를 종료하거나 방역조치를 해제하며 일상으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며 "우리도 높은 백신 접종률과 유행의 안정세, 그리고 의료대응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심스럽게 나아가겠다"며 일부 완화 의지를 드러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세월호 7주기… 노란리본의 약속

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행사가 13일 오전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구청 직원들이 세월호 기억 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인권위 "동성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 법적 인정해야"

성 소수자 주거권·노동권 등 차별…기본권 보장 법률 제정 권고

남녀 간 결합이 아닌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국회의장에게 성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거·의료·재산분할 등 공동체 생활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라고 권고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성 소수자 커플 1056명은 헌법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주거권·노동권·사회보장권·건강권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겪고 있으며, 동성 커플에 대한 어떤 공적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새롭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현하고 그 비중이 날로 증가하지만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전통적 가족 개념을 근거로 해 다양한 생활 공동체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받는다며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유형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바뀌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의 생활동반자법처럼 혼인·혈연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 성립과 효력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연합뉴스

북한 금강산 골프장 건물 사라져…남측시설 철거 계속

미 VOA 방송 위성사진 분석…해금강호텔 건물형태 남지 않아

북한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이 상당 부분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난티 골프장의 리조트 단지에서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조트 단지는 중심부 건물 및 그 좌우와 뒤쪽으로 배치된 8개 건물로 이뤄졌는데 9일까지 위성으로 포착됐던 중심부 건물이 10일에는 사라졌다.

중심부 건물 북쪽의 2개 동은 11일에는 건물 일부만 남긴 모습이었고, 나머지 6개 동은 지붕 색깔이 달라지고 원래의 직사각형에서 모양이 변했다.

아난티 골프장은 국내 리조트기업 아난티가 북한이 현대아산에 임대한 대지 168만5000㎡(51만평)를 50년간 재임대해 세운 시설이다. 2008년 5월 개장했지만 2개월 후 발생한 박왕자 씨 피격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되면서 다시 문을 열지 못했다.

아난티 측은 미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금강산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골프장(18홀)과 리조트(96실) 등 해당 시설의 자산 507억 원을 손상 처리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부터 철거를 진행한 해금강 호텔은 현재 사실상 건물의 형태가 남지 않을 정도로 작업이 진행됐다.

플래닛랩스의 11일 사진에서 해금강 호텔 건물 양쪽 끝에 남았던 지지 구조물이 상당 부분 사라졌고, 건물 중심부는 하층 지지 부위만 남은 듯 어두운 색상을 띄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10월 금강산을 시찰한 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으며 약 2년 5개월 후인 지난달 6일부터 해금강호텔의 철거 정황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정부 '특별여행주의보' 해제…코로나 이후 2년만

정부가 전 국가·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여 만에 해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정부의 방역 정책 기조 및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등을 감안해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14일부터 각 국별 기존 여행경보 발령 체제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와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22개국과 괌, 사이판 지역은 여행경보 1단계로, 영국·독일·프랑스 등 129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중국과 러시아 등 26개국은 특별여행주의보가 유지되며, 기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및 4단계(여행금지) 발령 국가와 지역은 현 단계가 유지된다.

정부는 2020년 3월 23일 특별 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했으며, 한 달 단위로 이를 계속 연장해 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 시행에 앞서 코로나19 동향(백신 접종률 포함) ▲백신접종 증명서 상호 인정 여부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단기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분기별로 여행경보 조정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급격한 방역상황 변동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시 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임야 3천평이상 삽니다
지분환영. 010-6837-4700

지분 부동산 삽니다
당일처리. 010-7207-9500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라브즙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체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2 전원 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럽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m2(1.276평) 매 ㎡ 9십만원

4 임야 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옹달샘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자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6개월과정)
일 시 : 2022. 5. 3 (화) 오후7시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수강료 :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무료)
일 시 : 2022. 4. 26 (화) 오후7시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상가건물 다량보유 부동산매매
담양 월산면 4차선도로변 계획관리 대지
4,200㎡, 4층건물, 2층가든
→ 매가 15억원
영암 신북면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 전, 임야
11,000㎡ 현재 감나무과수원
→ 매가 5억원
나주시 오량동 농공단지 공장용지
3,500㎡, 냉동창고 660㎡, 창고 330㎡
→ 매가 11억원
화순 도곡면 전원주택단지
약 7,400㎡, 전체조성됨, 12필지
→ 매가 20억원
군산시 수송동 지하1층 지상6층 대지
840㎡, 메디컬상가, 보10억 월 3200만원 (부가세, 관리비포함) 은행45억원포함
→ 매가 68억원 (현금 13억원)
해남읍 사찰, 임야
전 36,000㎡ 건물6동 납골당1500기
→ 매가 10억원
두암동 대지
2,900㎡, 건물7동 있음
→ 매가 66억원
동구 지산동 조대후문 먹자골목 상가주택
지하1층 지상3층
→ 매가 7억5천만원
계림오거리 한마음부동산 010-2314-8567

30년쯤전에 연락이후 소식을 모르는
기성권(승권) 67년생 남 찾습니다
친어머니 이 수 연
아버지는 법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오래전사망
동생 이 재 선 HP. 010-5591-7208
연락 바랍니다

분 실 공 고

• 공급계약서 : 전남 나주시 송월동 135-3 108동 1403호
• 계약자 : 박 해 영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2년 4월 14일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